

< 번개신의 가호 >

" 우리 사이에도 뭔가 통하는게 있지 않을까요? "

[인장]



[외관]



적장발 금안, 안경, 근육 체형, 183cm 80kg

부드러운 동작과 각진 어깨 따라 반듯하게 떨어지는 옷자락은 군인보다는 성직자를 연상시킨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듯 격식 있는 옷을 주로 입으며, 설 때 조차도 되도록 단정한 차림새를 한다. 목끝까지 채우는 단추를 답답해하던 때도 있었는데 오래된 규칙은 습관으로 자리잡아 어울리지 않던 옷이 이제는 제 것 같다.

여느 동기들이 그렇듯이 신체 곳곳에 자잘한 흉이 많다. 단정한 옷깃 아래로 손이나 목덜미를 긁어놓은 상처들은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듯 하다. 특히나 굳은살, 십여년 넘도록 무기를 잡아온 시간이 켜켜히 쌓여 단단해진 손. 한 손 무기인데도 양 손이 거칠다. 악수를 나눠보면 그가 훈련에 한시도 소홀한 적 없음을 알 수 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칼은 오로지 계약마의 취향. 실용성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 잦은 정전기 탓에 한 갈래로 묶고 다니나, 종종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머리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이름]

아인 체스터 / **Ain Chester**

[나이]

32

[키 / 몸무게]

183 / 80

[국적]

아시브 공국

[학부]

융합학부 (이데아)

[성흔 (이능력)]

소환 - 번개 운용

- 번개를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보호막을 치거나, 상대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등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 소환된 계약마가 직접 번개를 다루거나, 계약자의 무기에 번개를 전도해줍니다. 무기로는 마력으로 구체화한 채찍을 주로 사용합니다. 성흔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기를 타고 방전되는 번개의 특성 상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 계약마는 자칭 위대한 번개의 신이라며 거드름을 피우지만, 그렇게 격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스테이터스]

공격력 :

방어력 :

지력 :

설화 : 30

[스킬]

재액 - (지정한 적군의 공격력을 3턴 동안 하락 : 1D4)

(남의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그의 재주이므로!)

셔플 - (당일 능력치를 랜덤으로 재설정)

【 성격 】

모범적으로 단정한 차림새, 곧은 자세, 군더더기 없는 행동거지. 걸음은 정박자로 일정하고 성가대원처럼 청명한 목소리는 발음이 명확하다. 차분한 말씨를 듣다 보면 노래도 썩 잘 하겠구나 짐작이 간다. 물건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섬세한 손동작이나 군용 식량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마저도 그의 출신을 믿기 어려울 만큼 고상스럽다. 이런 전쟁터엔 어울리지 않게도, 그에겐 모든 동작을 우아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썩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를 성실하거나 온화하고 기품 있는 자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잠깐의 착각은 쉽게 깨진다.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성질머리가 제법 괴팍하다. 찬송시를 읊을 듯 맑은 목소리로 성격 나쁜 농담을 즐기며, 코웃음과 함께 통명스러운 말을 쏟아낸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손속은 거칠어지고, 무심코 걸걸한 말투가 쏟아진다. 제기랄, 젠장할, 빌x먹을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3종 세트. 불평이 많은 만큼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신중해 집단에서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신뢰하는 대상의 말에 충실하며, 한 번 결정된 것엔 행동력 좋게 따라주어 적절한 리더 밑에서는 날개 달린 듯 날뛰는 타입.

자신의 불평 많은 성격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생각해, 그게 말이 쉽지! 덕분에 늘상 피로하다. 미간 사이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거뿔한 눈가를 썩썩 문지르는 버릇이 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할 때엔 흔들림이 없으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부담감은 신경질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금 위치야말로 그에게 천직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오랜 시간을 군사학교에서 보낸 탓일까, 사람 대하는 요령이 없다고 해도 좋았다. 그럼에도 여지껏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사과와 정정이 빠른 덕이다. 단호하게 요구할수록 잘 알아듣는다.

사적인 관계가 없었던 티가 나는 게지, 그쪽 방면으로 찰러보면 의외로 쉽게 당황한다. 그럴 때면 능청을 떨며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든다.

정작 자신은 제법 능청을 떨면서도 의사표현이 분명한 사람을 선호한다. 애초에 사적 관계를 잘 만들지 않으므로 근무 중엔 임무의 목적, 의도, 작전만이 중요하다. 섬세한 배려나 원활한 화법보다야 책임감과 판단력을 우선으로 따졌다.

우아함이나 고상함 따위를 쉽게 비웃으면서 모순적으로 그런 태도를 버리지는 못한다. 그것은 비단 계약마의 요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권위는 삶을 윤택하게 하므로.

성실하달지, 집착이 있달지. 간절함이라곤 생에 없었던 사람같이 생겨서는 질척거리는 면이 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노력으로 성취해온 사람은 적게 쉬고 배로 일한다. 기회가 오면 잡았고, 일정표에 있는 빈틈마저 계획적으로 배치한다. 평소에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훈련은 불만 없이 참가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릎을 가볍게 해서라도 배웠다.

뭐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자리를 유지할 수라도 있어야 한다.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 자신에겐 이 길밖에 없다는 듯이 절박한 구석이 있다.

잔걱정이 많다. 작게는 식단 걱정부터, 크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수, 평소같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한다. 눈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릴 듯이 굴면서 주변을 제법 신경쓴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나하나 그의 행동을 짚어주면 별 수 없단 듯이 쫓, 혀를 차곤 입을 다물어버릴 정도. 괜한 참견이 되지 않으려 자제하는 눈치지만 글썽, 의식 없이 하는 일이라 쉽지는 않을 듯 하다.

의외로 잔정이 제법 있다. 위태하고 어린 것들에 마음이 약하나, 이런 곳에서 썩 필요한 태도는 아니다.

【기타】

계약마 - 번개의 신?

정화의 불꽃, 하늘에서 내린 빛을 관장하는 번개의 신 잉고르자하트.

“체스터, 당신의 계약마는 누구입니까?” “잉고... (제기랄!) 정화의 불꽃과 심판의 빛을 관장하시는 지고하신 번개의 신, 잉고르자하트 되십니다.”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떼면 따끔한 정전기에 진저리를 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와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정화의 불꽃, 하늘이 선사한 빛, 심판하는 빛의 창.

잉고르자하트의 이름은 나이 많은 몇몇 설화가 뒷받침한다. 주 상징은 벼락 맞은 주목나무. 추구하는 가치는 강인함, 아름다움, 정결함. 한때 명망있었으나 잊혀져가는 신으로, 소환의 형태를 취한 걸 보면 알 수 있듯 이제는 그 이름이나 격이 높진 않다. 사그라든 힘에 비해 계약 조건은 턱없이 높아 일부 대행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까다롭-다지만 사실상 불평등 착취 계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소환된 모습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눈을 감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흰 소녀의 모습이며, 고풍스러운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 보기엔 제법 귀여운 모습이다.

계약마의 손길이 닿은 것인지, 성흔 탓인지 주변에 자주 정전기가 인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것도 풀어헤쳤을 때 몰아치는 정전기의 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서라는 추측. 아예 잘라버리면 조금 편할 텐데, 계약마의 취향에 따라 긴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계약마는 지고하신 품격만큼이나 요구사항이 많았다. 불필요한 행동을 삼갈 것. 방정맞게 굴지 말 것. 자기 관리를 확실히 할 것. 정화의 불꽃의 이름에 걸맞게 정결할 것. 신에 대한 공경을 잊지 말 것. 술에 취하지 말 것. 격에 맞도록 말투를 바로할 것... 비뚤게 굴 때마다 징벌처럼 이는 따끔한 정전기는 종종 자잘한 화상을 남기고 사라진다. 젠장할! 신이란 작자들은 사생활을 모르, 아야! 체스터는 청소년부때만 해도 길 가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곤 했으나-제기랄, 허리 편다, 내가!-, 지금은 이 일종의 천벌에 익숙해진 것인지 썩 그럴싸한 대행자의 모습을 보인다.

Q. 어쩌다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A. 사기계약이었, (악!) 간절함에 신이 답해주신 덕이다. 지고하신 분께서 모든 간절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으나, 선조가 덕을 쌓아 기회가 있었다.

Q. 좋아하는 것은?

A. 특별히 가리는 것은 없다. 일이 험하다 보니 한가롭게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된다.

호 : 종류 불문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환장함. 술(정말 좋아한다기보단 금제에 대한 반작용에 가깝다). 다양한 차. 여행(출장 외로는 해본 적 없음.). 자유로운 시간. 소설. (신이 나오지 않는)

연극. / 불호 : 술. 책임과 의무. 얇은 지갑. 사회적 책임 탓에 잉고르자하트의 계약과 어긋나는 행동이 강제되는 상황.

가문 - 수 세대 전에 몰락한 귀족가. 지금은 평민이나 다름없다. 오래 전 신 잉고르자하트에게 공을 샀으나 신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라 지금에서야 그 가호를 나누어받았다.

학생 때만 해도 썩 괄괄한 성격이었으나 성인부에 걸쳐 지금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 비밀 설정 】

체스터는 먼 과거 명망 높은 집안이었다고 하나 몰락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책임져야 할 동생이나 가정의 생활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자랐다. 어렸을 적엔 배운 것 없이 간절함만 있어서 그런 자신을 찾아준 잉고르자하트가 대단한 존재로 보였고, 멋모르고 그의 종신 계약을 받아들였다. 종신 계약이라는 말이나 어려운 말로 쓰인 조건들은 어린 아이를 겁먹게 했으나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컸다. 몇 가지 다행인 점은 책임을 아는 잉고르자하트가 계약 조건에 있어 (땀에는) 상당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점이고, 힘을 잃어 격이 한참은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 수준이 다른 계약마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생각하자면 딱한 일이었으나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이들이 많다. 아인은 지금에 만족하며 이미 쥔 것이라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 노력한다.

부유한 생활을 동경한다. 우아함이나 고상함 따위를 비웃으면서도 쉽게 그런 태도를 버리지는 못한다. 권위는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없는 자의 궁핍함을 알고, 가진 것이 생기니 잃을 것이 두려워졌다. 때때로 그런 자신에 자괴감을 느낀다.

잔정도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전장에 썩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해온 일이 이뿐이므로 제게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여겼다. 그만큼 뒤쳐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다소 강박적으로 자기계발이나 역할을 다하는 일에 매달린다.

전쟁의 피폐함에 대해 생각하자면 수많은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으나 막상 물으면 의외로 깊은 한숨 한 번. 피로한 눈짓 한 번. 그리고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문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금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불쑥 고개를 드는 의심과 가치판단의 문제는 속으로 밀어넣는다. 몸이 편하니 이런 생각이나 드는 거야. 어차피 개인이 막을 수 없는 일이다.